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 대성공...누적조회 12만회



3일 동안 진도군이 개최한 202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 누적 조회 수가 12만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 42회째를 맞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올해 42회째...코로나19로 온라인 전환 바닷길 갈라지는 장면 라이브 송출 '호응'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관광지, 문화예술, 농수특산물 등 진도군을 널리 홍보하면서 축제를 뜨겁게 달궜다.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와 진도복놀이 등 보배섬 진도군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 등을 실시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동시 시청자 4,821명, 댓글 등 누적재팅 2,896건, 누적 조회수 12만회 기록을 남기며, 온라인 축제가 성공을 거두었다.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는 생생한

장면을 라이브로 송출해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축제 기간 매일 송출됐으며, 최대 4,000여명이 접속해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갈라진 현장 등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예술공연 등을 즐겼다. 이밖에 '나도 와셔라-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억 소환 인증샷', '도전! 온라인 퀴즈 열정', '진도출신 가수 송가인씨 노래 따라 부르기' 등의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관계자는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는데 큰 경

험과 노하우를 얻었다"며 "처음 시도한 온라인 축제인 만큼 사후 평가에도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의 축제들을 더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입체적 축제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역량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배섬 진도 관광의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미래형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전남도·우정청 협업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

16일까지 신세계 온라인몰 통해 44개 품목 최대 30% 할인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강진군이 국내 최대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가진다. 이번 기획전은 비대면 소비 패턴의 변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진군-전남도-전남지방우정청 협업으로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신세계 온라인몰(www.ssg.com)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제품 중 우체국쇼핑에 입점된 11개

업체, 44개 품목(쌀귀리고추장, 파프리카, 한우, 표고버섯, 김자반, 광어회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군은 올해 초 주력 특산품으로 육성 중인 쌀귀리를 주원료로 만든 고추장이 흡소핑을 통해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진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장미, 수국 등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지금까지 18만 송이, 3억 5,000

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비대면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5월부터는 꽃차와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쌀귀리와 화훼류와의 협업 상품을 통해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새로운 100년 여는 신청사시대 개막"...해남군민의 날 행사

전남 첫 온라인 기념식 진행

제48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가 4월 30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해 시상식 등 간소한 기념행사 위주로 치러졌다. 특히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을 채택해 '#유쾌한 변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남인입니다'라는 주제로 해남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일년남게 지속된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우리 해남은 대한민국 청정일번지 땅끝해남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며 "뜻깊은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과 함께 '다시 뛰는 해남, 빛나라 땅끝'을 기필코 이루어 해남이 다시한번 전남의 중심군으로 우뚝서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현수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의 군정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청렴도 향상과 매니페스트 최우수 평가 등 군민들의 자긍심을 되살아 난 점을 강조하며, "해남은 군정의 전 분야에서 최초, 최대, 최고의 기록들을 연달아 갱신하면서 민선 7기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중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청년센터를 개관하며,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수 스키어워크와 해상 케이블카 조성을 완료한다. 특히 서남권 행정 랜드마크가 될 군청신축이 마무리돼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길 신청사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5월 5일(어린이날) 재개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명탐정 코난' 등 5개 작품 상영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관 중이었던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를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으로는 예매율 1위로 흥행 중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어린이날을 맞아 '명탐정 코난', '크루즈패밀리' 등 5개 작품이 상영된다. 관람료는 시중 영화 관람료의 60%인 일반 7,000원이며 청소년은 6,000원, 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할인된 4,000원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휴가증, 신분증 등 본인확인 후 할인 금액 적용이 가능하다. 정준승 장흥군수는 "정남진시네마의 재개관으로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원 지급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도 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2인 가족 월 23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 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업인 경영 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원이 지원된다. 완도=이민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